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내년 6월부터 시행

시,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 도입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3년 연장

친환경차 취득세 200만원 공제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4법 제·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변경된 법령을 알리는 한편 지방세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제는 크게 5가지 분야로 개편됐다. 우선 지방세 관계법이 현행 3법에서 4법으로 확대 개편됐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에 지방세징수법이 새로 제정됐다.

지방세징수법 제정은 기존 지방세기본법이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

는 지적에 따라 국세와 같이 징수와 체납 분야를 분리했다.

이와 함께 납세 편의에 중점이 모아졌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 신고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먼저, 서민·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지속 지원하되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취득세 세액 공제를 현행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율 1%에서 3%까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하게 됐고,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앞으로 부과세 조처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세제가 개편된다. 외국인에 대한 개인공통할주금제의 경우, 기존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에서 8월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과세요건이 완화된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시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3회 이상

체납에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지방세 스마트 고지·납부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납부시스템은 기존 종이고지서와 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던 방식에서 스마트폰과 SNS, 핀테크(Fin-Tech)를 결합한 전자고지와 인터넷 간편납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 관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에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편으로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지적인 불만사항의 해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펼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민들이 책으로 엮은 신창동 이야기

'신창, 마을에 닿길' 발간

"기획부터 취재 출판까지 우리 손으로 했어요"

광주 광산구 신창동 주민들이 마을지 '신창, 마을에 닿길'을 발간했다. 지난 4월 역사와 사람의 자취를 마을지에 담아보자고 나선지 7개월만의 결실이다. 주민들은 최근 신창동 송년의 날 행사에서 발간식을 가졌다.



'신창, 마을에 닿길'은 주민, 신창동 유적지, 마을 명소, 주민 동아리와 공동체 활동 등을 4개 주제로 나눠 120여 쪽에 담고 있다.

매월 여러 시민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진고개반점 주민 부부를 비롯한 주민 11명의 사연, 선사시대 타임캡슐로 불리는 신창동 유적지의 중요성, 호수와 공

원의 정취, 이웃과 함께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생생하다.

발간 기획부터 취재, 편집 등 모든 것을 주민들이 직접 해낸 것이 눈길을 끈다. 지원자를 모집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취재, 촬영, 글쓰기 교육을 진행했다. 8월부터는 마을지 발간위원회와 마을지자단을 구성해 취재 분야를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마을지 제작에 돌입했다.

마을지 발간위원회는 '신창, 마을에 닿길'을 300부 인쇄해 작은 도서관, 동주민센터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배포했다.

마을지 제작에 앞장 선 이종화 신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을 보다 잘 알고픈 주민들의 바람이 마을지 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이웃들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신창동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아동여성 안심골목·지역연대' 장관상

광주시·북구·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는 지난 16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웨라톤 서울 팰리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2016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및 지역안전프로그램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광주여성민우회, 광주광역시 북구와 함께 각각 여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와 광주여성민우회는 지역안전 프로그램 부문에서, 광주시 북구는 지역연대운영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안전프로그램은 아동·여성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 내 인적·물적자원 등을 활용, 각 지역별 특성화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수행기관인 광주여성민우회와 함께 '동네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안

심골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화정 3동과 농성1동을 사업대상지로 해 화정3동은 할매 바리스타 및 마을 도슨트 교육, 폭력 예방교육 등을 집중 실시했다. 농성1동은 주민들이 운동하러 다니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골목길 350m에 페인팅, 타일을 이용한 벽화,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해 '안심 건강길'을 조성했다.

농성1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노후한 가옥들이 많아 항상 위험을 호소한 곳을 환경개선 사업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작업하는 등 안전을 지키는 주체는 바로 마을주민이라는 것과 공동체 형성이 안전한 마을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알려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거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내복 입고 환경 지키고

(재)국제기후환경센터는 겨울을 맞아 최근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그린리더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난방에

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에 도움이 되는 '온(溫)쓰기' 캠페인을 펼쳤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제공

광주시 항공구조대, 안전점검 전국 최우수

광주시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구급대가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2016년 전국 시·도 소방항공대 안전점검 평가'에서 15개 시·도 소방항공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항공안전점검 평가는 시민에게 양질의 항공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항관리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해마다 소방항공대의 안전과 교육훈련 관리, 항공기부품 정비관리 등을 측정하고 있다.

시 소방항공대는 ▲항공대 운항편성 및 절차의 적절성 ▲항공기 부품 등 정비이력 집중 관리로 안전체계 구축 ▲계기비행 유자격자 보유 현황 등에서 높

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1997년도 창설된 이후 철저한 항공안전관리로 20년간(2477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1960회 출동해 350여 명의 인명구조와 환자 이송 활동, 650여 회에 걸친 산불진화와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

조태길 119특수구조단장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훈련 소방헬기 안전관리를 실시해 항상 최상의 항공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원·역사 등 노숙인 집중 점검 보호 조치

광주시가 동절기를 맞아 19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숙인 보호를 위한 취약지역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동절기 노숙인 집중점검반은 광주시 20명과 자치구 20명 등 총 40명으로 운영되고,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별로 경찰, 소방, 노숙인시설 직원 등이 참여하는 점검반 35명도 운영된다.

점검반은 취약지역인 금남공원, 광천터미널, 광주역, 송정역, 지하철역 등을 중점 살펴 노숙인과 상담한 후 연고지가 있어

귀향을 희망하는 경우 귀향 여비를 지급하고 시설 입소 희망자는 시설로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은 2곳이다. 광주희망원은 노숙인재활시설로 신채장이나 정신장애 등 각종 질환으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이 입소하고,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등노숙인쉼터에 입소해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h2 style="text-align: center;">급, 싸고 좋은 땅</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h2 style="text-align: center;">남평, 최고 토지</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에서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80만원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h2 style="text-align: center;">구례, 대형모텔</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층 지상4층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61개 ■ 법인체 인수 가능 ■ 동업 운영 하실분 환영 ■ 리모델링 중 (4억예상) ■ 매매 - 협의 ■ 대출 - 8억 있음 ■ 감정가 - 현재 15억 ■ 주인직매 H.010-3605-5000
--	---	---